

제 언

6년제 수의학교육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정 길

서 언

우리의 수의학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는 오래전에 제기되었고, 그것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되어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6년제가 적용된다. 돌이켜 보면 그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58년을 전후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수의학교육에 접한 뜻있는 분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1,2} 우리의 수의학교육은 교육시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당시에 제시되었고³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법을 소개하거나 우리의 수의학교육현황을 분석하여 보고함으로써 수의학교육개선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0년대에 시도되었던 수의학교육의 학제개편은 통폐합과 부활이라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⁴

우리나라 수의학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가까운 일본의 수의학교육제도가 법의 개정으로 1983년부터 6년제가 되면서⁵ 우리의 학제개편도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임을 갖고 그 의견을 종합하여 1989년에 수의과대학의 교육연한을 현재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주도록 문교부에 건의하였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수의과대학 수업연

한 연장방안에 관한 연구"가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었고, 그 연구의 결과는 1995년 7월 "한국 수의학교육의 수업연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토론을 거쳤으며 그 자리에서 관련된 많은 사람의 의견이 집약되었다.⁶ 그리고 같은 해에는 대한수의사회에서 "한국 수의학교육연한 연장에 관한 특집"을 마련하여 그 당위성⁷, 한국 수의학의 현실⁸, 구미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의학교육⁶, 일본의 수의학교육⁹ 등에 관한 의견을 대한수의사회지에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1996년 8월 23일에 드디어 수의과대학 수업연한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6년으로 공포되면서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수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얻은 6년제 수의학교육이 바로 내년인 1998년부터 실시되게 되는 지금 이 시점에 먼저 우리 수의학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제의 연장에서 예견되는 문제를 똑바로 지적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것은 미리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이 글을 쓴다. 예견되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을 우리는 가까운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 우리보다 나은 여건을 가진 일본이지만 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른 교원수 및 시설 확충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육의 질적향상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생각을 필자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이 지면을 통하여 발표되면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다음 수의학계와 관련된 우리 모두에게

*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유익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당면한 문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의학교육의 수업연한이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여러가지이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전공교육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다양한 수의학의 분야별 전문인을 양성할 수 없고, (2)새롭게 발전하는 학문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3)국제무역이나 통상 그리고 학술교류에서 우리나라의 수의사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따라서 수업연한의 연장은 내적으로는 전문인을 양성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산업에 이바지하고 외적으로는 국제적인 경쟁사회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연한의 연장만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달리 말하자면 수업연한의 연장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교육의 질은 향상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 기술한 바 있는 1995년 공청회의 한 주제발표자는 현재의 각 대학교에 있는 수의과대학이나 수의학과와 교수 수가 수의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의 교수 수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현재의 교수에 임상과목을 담당할 교수 약 4~5명만 보충하면 6년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을 했다. 그 발표자는 수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심사숙고해 보면 6년제 교육의 목적에 합당한 인적 및 물질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의 실정

우리 나라에는 9개 국립대학교와 1개 사립대학교에 도합 10개의 수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중 7개 국립대학교에는 수의과대학의 수의학과로, 나머지 2개 국립대학교와 1개 사립대학교에는 축산대학 또는 농과대학의 수의학과로 설치되어 있다. 각 학교의 교수 수와 입학정원 그리고 교수 수 대학생 수의 비를 보면

표 1과 같다.⁸

우리가 이 표에서 눈여겨 볼 것은 각 대학 수의학과 의 교수 수이다. 교수 수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7명으로 다양하다. 서울대학교의 27명을 제외하면 17명이 가장 많은 수인데 그 수에 4~5명을 더하면 21~22명이 되고, 가장 적은 10명에 그 수를 더하면 14~15명의 교수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학교에서는 15명으로, 또 다른 학교에서는 20명 내외의 교수로 6년제 수의학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학제의 개편이 국제경쟁력을 기르는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수의학과 의 교수 수, 입학정원 그리고 교수/학생비

대 학	교수 수	입학정원(총원)	교수/학생비
강원대학교	10	40(160)	1 : 16
건국대학교	10	40(160)	1 : 16
경북대학교	17	60(240)	1 : 14
경상대학교	15	50(200)	1 : 13
서울대학교	27	60(240)	1 : 9
전남대학교	16	50(200)	1 : 13
전북대학교	16	50(200)	1 : 13
제주대학교	11	40(160)	1 : 15
충남대학교	13	60(240)	1 : 18
충북대학교	13	40(160)	1 : 12
계	148	490(1960)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의학교육의 연한 연장에 당면하여 우리는 현재의 수의사들에 비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미래 수의사들을 배출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학제의 연장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의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면 이러한 위험은 자못 심각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하는 것이다.

위에 나타난 교수의 수로 6년제 수의학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필자의 의견으로는 넌센스다. 그 수는 구

미 선진국에서의 수에 비하면 너무 적고⁸ 우리에게 비하여 나은 여건의 일본에서도 교육기간은 2년이 늘었으나 그에 따른 교원 수와 시설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⁹ 현재의 상태로 6년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무리임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여러 교수가 년센스라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교육부에 요청하여 6년제 교육에 필요한 만큼의 교수 수를 확보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며 오늘의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그것은 어렵없는 일이다.

필자는 지금이 우리가 모든 지혜를 짜내어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의견의 제시에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어떤 의견이 옳을 경우 찬동하며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합의된 일의 추진에는 사소한 욕심이나 이기심이 발동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까지의 필자의 논의를 요약하면 현재의 우리 수의학교육의 실정을 고려하여 거기서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를 적시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할 차례인 것 같다.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수의학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의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개진한 의견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1996년 10월 22일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과 학연구소에서는 "21세기 수의학교육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거기에 지정토론자로 초청된 배상호(농림부 가축위생과장)는¹⁰ 10개 대학에 있는 수의학과와 입학정원 490명이 국내 수의사의 수급에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또한 현 10개 대학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권역화하여 현 대학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렴, 추진하여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 다른 토론자인 이각모(대한수의사회 정책기획위원장)도¹¹ 수의사 1인당 가축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수의학제의 6년제 개편에 앞서 수의

과대학의 일정부분 통폐합과 더불어 신설의 역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의학교육에 중사하는 상당수의 교수들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교육연한의 연장과 항상 함께 논의된 것은 전국에 산재한 수의교육기관(수의과대학 또는 농과대학의 수의학과)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3,12,13} 이러한 주장은 수의교육기관의 수가 많기 때문에 배출되는 수의사의 수가 가축 사육두수에 비하여 너무 많고, 각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수가 외국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적어서 통합함으로써 교수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수가 적어지면 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 교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한 당위성에서 통합이 시도되었고 실제 1973년 9월에 법이 바뀌어 교육연한이 6년으로 연장됨과 동시에 전국 8개 대학의 수의학과는 폐과되고 서울대학교에 수의과대학이 신설되기까지 했다. 약 2년 후인 1975년 12월에 법이 다시 바뀌어 교육연한은 4년으로 환원되었고, 전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 수의학과가 부활되었다.^{14,15}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그 때보다 더 많은 10개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와같은 시도는 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지 아니한데다가 여분까지도 무시한 채 계획된 것으로 무산될 운명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⁴ 그 시도가 시행착오로 끝난 다음에 나온 안¹³은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수의학교육의 연한연장은 수의학계에서 시도한 두 번째의 일로서 첫 시도후 24년만에 얻어낸 큰 소득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시도가 성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필자는 우리가 주장한 "당위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4반세기 동안 우리는 꾸준히 수업연한의 연장을 주장하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6년으로 개편된 수의학교육의 실시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장한 당위성을 되새겨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당위성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수의학교육을 보다 잘 해서 전문인을 양성하여 사회에 봉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우리의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제 안

지면관계나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하나 하나를 들어 그 타당성이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틀만을 제안하자면 전국에 산재한 너무 많은 수의학 교육기관은 통합되어야 한다. 통합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하는데 그 조건들은 교육부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에 관한 논의는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나 전국수의과대학(과)장협의회에서 주관해야 한다.

통합은 교육부와 관계 때문에 9개 국립대학교의 수의학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통합원칙이 확정된 다음에 논의해도 될 것이다. 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통합하면 현재의 9개 대학의 수의학과를 3개 학과씩 합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 대학의 교수 수가 40~50명이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수를 적어도 60명 이상으로 늘려 주어야 하고 아울러 충분한 조교의 수와 교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 예를 들어 수의학계에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미국의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인접한 오래된 주와 아이다호 주를 합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¹⁶ 오래된 주립대학교에도 수의과대학이 있어 수의사를 배출하지만 자기 학생들을 2학년 전·후학과와 3학년 전학기 모두 3학기를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보내 수학시키고 있다. 아이다호 주립대학교에는 수의

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매년 그 주에서 일정한 수의 학생을 선발한 다음 워싱턴 주립대학교로 보내어 수의학교육을 받게 하면서 자신들은 수의학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워싱턴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의 야외에서 환축에 접하는 실습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 2년 마다 교수들이 모여 교과과정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의를 거쳐 개선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에 대비해 나간다.

결 언

우리 나라에서도 1998학년도부터 수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6년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학제개편은 수의학교육의 수준을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향상시킴으로써 내적으로는 국가산업에 이바지하고 외적으로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활동에서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주장해온 학제개편의 당위성은 바로 수의학교육수준의 향상이었다. 수의학교육수준의 향상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교수요원의 확보라는 사실을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실정을 속속들이 알면서 외국에서 수의학교육에 종사하는 학자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¹⁷ 그렇다면 그 중요한 문제에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필자는 6년제 수의학교육의 실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의 현 실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 지면을 통하여 제안했다. 필자의 제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없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음, 좋은 안이 도출되어 우리 수의학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참 고 문 헌

1. 윤석봉 : 미국의 수의해부학 교육. 수의계, 1958 ; 2 : 48-49.
2. 정창국 : 미네소타대학교 수의과대학병원과 미네소타주의 임상수의사의 현상. 수의계, 1961 ; 5 : 29-31.
3. 백영기 : 수의학교육에 대한 관견. 수의계, 1959 ; 3 : 1-4 및 59.
4. 이정길 : 수업연한이 연장된 후의 수의학교육. 대한수의사회지, 1991 ; 27 : 719-724.
5. 清水悠紀臣 : 21세기에서의 수의학연구의 역할. 대한수의학회지, 1987 ; 27(부록) : 9-19.
6. 이정길 : 구미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의학교육 - 학제와 교과과정. 대한수의사회지, 1995 ; 31 : 773-778.
7. 양일석 : 수의학교육 수업연한 연장의 당위성. 대한수의사회지, 1995 ; 31 : 754-762.
8. 이상목 : 한국 수의학의 현실. 대한수의사회지, 1995 ; 31 : 763-772.
9. 이은송 : 일본의 수의학교육. 대한수의사회지, 1995 ; 31 : 779-782.
10. 배상호 : 수의학제 개편에 따른 가축위생

정책방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21세기 수의학교육의 발전전략" 발표자료 pp. 137-140. 11. 이각모 : 수의학교육 개편에 대한 의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21세기 수의학교육의 발전전략" 발표자료. pp. 153-156. 12. 전운성 : 수의학과 교육의 분석과 제언. 수의계, 1964 ; 8 : 64-65 및 55. 13. 이장락 : 수의학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대한수의사회지, 1981 ; 17 : 26-33. 14. 이영소 : 한국 수의학교육의 발자취. 대한수의사회지, 1977 ; 13 : 4-8. 15. 신광순 : 수의학연구 4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수의사회지, 1987 ; 23 : 147-152. 16. Washington-Oregon-Idaho Regional Program in Veterinary Medical Education: Information for Prospective Applicants 1990-1991. 17. 조두연 : 미국 수의학교육의 21세기 전략.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21세기 수의학교육의 발전전략" 발표자료 pp. 81-98.

대한수의사회지 합본판 배포 안내

본회에서 발간하는 대한수의사회지의 연도별 합본판을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실비로 배포하고자하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발간년도	잔여부수	발간년도	잔여부수	발간년도	잔여부수
1979-80	1	1989	1	1993	7
1983	1	1990	6	1994	4
1985	1	1991	5		
1988	5	1992	14		

◆ 합본판 현황

- 공급가격 : 20,000원 / 합본 권당(발송비용 포함)
(송금후 발송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구좌 : 은행명 : 농협중앙회 신촌지점
구좌번호 : 037-17-001052
예금주 : 대한수의사회